

다산포럼

삼성전자의 비상 경영을 보며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출장비를 줄이고, 상반기 성과급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도록 했다. 경영지원실 인력을 현장사업부로 배치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도 줄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가 갑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비상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삼성전자의 문제는 결코 일개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로 유명한 1993년의 신경영 선언이 그렇듯 비상경영 선언은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삼성전자의 미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이번 비상경영에서도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행보

를 읽어보려는 시도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번에 표방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퇴행적인 면이 보여서 의아스럽고 안타깝다.

비상경영의 결정적 계기는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전년 동기 대비 -8.9%)과 영업이익(전년 동기 대비 -24.6%)이 급락했다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던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다. 전년 동기 대비 32%에 달했던 세계시장 점유율은 2분기에는 25.2%까지 하락했다.

이에 비해 주요 경쟁사인 애플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1%p)하기는 했지만 매출액 자체는 여전히 12% 증가했으며, 3위 업체인 중국의 허웨이도 큰 폭으로 매출액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설립된 지 4년여밖에 되지 않은 중국 톈중기업인 샤오미(小米)사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쳤다는 소식도 외신을 탔다.

알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시장, 이른바 소위 레드오션이다. 따라서 경쟁자가 속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새로운 업체의 성장과 시

장 나눠먹기 압력이 유독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이라는 데 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성장 방식의 특성에 대한 지적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은 2009년 이후 7~8조 원 수준으로 급증(2009년 이전까지 분기별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넘지 못했다)한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이 삼성전자 스스로 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이다.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장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 상품을 개량하고, 대량 생산으로 효율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삼성전자의 성장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발업체가 애플을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를 따라하기는 쉽다. 이 때문에 후발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압력이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에 집중된다는 예이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비용절감과 가격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익성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러한 진단이 2009년 이전의 수익성 회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향후 새로운 시장을 찾는 등 다른 대응책을 찾아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만, 그 방식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성장을 끌고 온 TV,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어디에서도 삼성전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경우는 찾을 수 없다.

이번에 내놓은 비상경영이라는 대응책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핵심이 비용절감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협력업체의 납품가격을 후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 이 수익성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능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가 혁신능력과 무슨 관련을 갖는지 알 수 없으며,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총수 한 명만 바라보는 현재의 체제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비전으로 총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삼성 스스로에게서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의 비극이 될 수 있다.

정춘 특·특

가장 뜨거운 눈물로, 이열치열 여름나기



김나영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스무 살, 이십대로 보내는 첫 해가 특별하기만을 바랐고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 기회가 다가왔다. 나로 인해, 나의 작은 손길로 인해 나와 피부색이 다른, 나와 피가 다른 어떤 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던,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내가 스무 살로 보냈던 매 순간은 경험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이십 대로서의 첫 시작이었기에 간절하고 치열하게 보내고 싶었다. 끊임없이 도전했고 지금의 내 앞에 놓인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해의 봉사라는 기회를 얻었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3년 7월 여름,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비로소 내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인도네시아에서의 2주는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 벽돌 한 장, 흙 한 삽의 무게 또한 그리 가볍지 않았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낯설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다.

자카르타에서 두 시간 가량을 달려 간 마을에서는 이미 그곳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집짓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율 정도만 간단히 숙지 받은 채 여섯 번째 집의 봉사자로 배정되었다. 그야말로 맨땅으로부터 지어질 우리의 '여섯 번째 집'과 그 집에서 살게 될 '홈 파트너'와의 2주간의 동고동락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집을 짓는 것은 물론, 한국을 처음 접하는 그곳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국의 문화로써 그들에게 선보이기로 한 것은 부채춤이었다. 부채춤의 '부'자도 모르는 스

무 명의 팀원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2주간의 일과는 매일 같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이동해서 해가 질 무렵까지 작업을 하고 돌아와 다시 문화 공연을 연습했다. 완벽한 공연을 보여 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자정이 지나 동틀 무렵까지 연습을 거듭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힘든 내 자신만 보았다. 왜 여기 이곳에서 있는지 대한 물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잠깐의 휴식을 위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고자 숨어 들어간 나무 그늘 아래서 비로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를 볼 수 있었다. 흐르는 땀 한 방울, 정겨운 웃음, 소박한 나눔 그리고 잠깐의 휴식과 같은 모든 것의 가치가 서로 교차하는 '따뜻함' 속이었다.

더 이상 나의 가치를 묻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시간이 아닌,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인해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쌓은 벽돌은 단단한 벽이 되

었고, 고르게 다진 흙은 바닥이 되었고, 두려움은 진심 어린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하나 둘, 하나 둘을 연신 외치고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그곳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을 건립할 수 있었다.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과 스스로에게 던졌던 물음,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 나와 내가 아닌 '우리'였기에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봉사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발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이웃'이라는 말은 너무도 어색하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 같만을 달려가기에 더 갑박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더 간절히 바란다. 올 여름이, 나와 이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유난히 더운 여름이 되기를. 가까운 나의 이웃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넘어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가장 뜨거운 땀과 눈물로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말이다.

社說

광주 문화행정 대대적인 개혁 필요하다

홍성담 씨의 결계그림 사태가 비엔날레재단과 문화재단 등 광주 문화행정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쌓인 광주 문화계의 적폐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관료주의의 청산이다. 그동안 민선 5기까지는 광주 시장이 비엔날레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재단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윤장현 시장은 앞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내려놓고 명예이사장으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일이다.

현행 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의 장기연임 체제도 비엔날레가 권위적으로 변질된 한 요인이 됐다. 2007년 2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하게 돼 있던 대표이사 임기 규정이 2011년 3년 무제한 재임으로 바뀌면서 작거나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계 수장에 대한 인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배제해야 한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등 3대 문화 수장의 경우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이를 골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 시립미술관장에 벌써부터 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비엔날레 대표이사에도 특정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려했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역을 떠나 한국을 대표할 만한 중량급 인사들이 문화행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엔날레재단을 비롯한 광주 문화행정의 쇄신은 광주문화가 새롭게 거듭나면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정신으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광주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속 참사 우려되는 대형차량 불법 개조

대형 화물차나 관광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제한장치를 해제시켜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일전된 노모(50)씨 등 무자격 정비업자 2명은 차주들로부터 대당 30만~100만 원을 받고 110km/h로 제한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해 130km/h로 늘려줬다는 것이다.

노씨 등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개조 프로그램을 구매해 뒤 'ECU 튜닝을 해준다'는 내용의 홍보명함을 전국 차고지를 돌아다니며 뿌려 연락이 오는 차주를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관내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만 330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도로에서 과속할 경우 '달리는 폭탄'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고시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속도제한장치를 풀어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 100여 명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조사 대상만 이 정도이고, 수사가 계속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알려져 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형차 불법 개조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데다 '시간(속도)이 돈'이라는 차주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크게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단속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일선 부속들이 이유로 대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전면 확대해 대형차의 불법 개조를 발견하면 바로 대형 형식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도록 해당기관에 촉구해야 한다. 관계당국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나 교통사고 조사 시에도 의무적으로 성능 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단식은 원래 종교 수행의 한 행태로 시작됐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모세는 80세의 고령에도 40일간 단식했고,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과 소금으로 견뎠다. 석가모니도 해탈의 고행 속에서 주기적으로 단식을 행했다.

무슬림에게 단식은 '신에게 들어가는 문'이고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쌓은 업을 씻는 과정'이다.

단식은 속세에 내려와 약자와 민중의 무기가 됐다. 단식투쟁은 몸종이로 유가족들의 반대로 움쩍달짝 못하자 일부 수중들이 김씨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단식투쟁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숙노조원이라는 등, 평소애 딸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등 비방성 글이 트위터 등 SNS에 넘쳐난다. 김기야 이름 없는 연예인은 노이즈마케팅을 노린 것인지 '황제단식'이라며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논란이 클수록 팩트(사실)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팩트는 유민아빠라는 힘 없고 평범한 한 가정의 목숨 건 단식인 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도, 국민도 본질을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유민아빠의 단식

기 고

친절한 말 속에는 강한 힘이 있다



유순남 해남공립고 교사·수필가

여름방학 전 교무실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발밑에서 놓고 있던 계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봄에는 운동장이나 화단에서 주로 놀던 게들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교무실 복도까지 나들이를 다니더니 이제는 교무실을 놀이터로 삼아 논다. 운동장 끝이 바다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는 1년 혹은 한 학기마다 학교를 옮겨 다니는 소위 비정규직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4년째 하고 있다. 워낙 바다를 좋아해서 주로 바닷가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 담으로 여행도 즐긴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사를 선택하지만, 읍인 나도 자연경관 좋고 학생들 인성 좋은 학교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젊어서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보다는 생활지도나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전공과목인 수학은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아이들의 성향과 업무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추세다보니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었고, 이제는 아이들과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다. 그렇지만 뉘니 뉘니 해도 교사는 수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의 확장시절 수학시간에는 교재와 공책 이외의 수업 도구라고는 삼각자, 각도기, 컴퍼스과 요점을 정리한 '차트' 정도였다. 교사가 되고나서 'OHP'수업을 했고, 다시 교단에 서던 3년 전까지만 해도 'ppt 수업'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답하는 '스마트 교육'이 등장했다.

한 학기에 한번 씩 하는 공개수업은 항상 긴장 되지만, 특히 지난 학기에 근무하던 학교는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라 전문

가들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익숙하지 못한 스마트수업을 해야 해서 더욱 긴장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평가를 받는 시간이었다. 수업공개를 한 아홉 명의 선생님과 과 교장, 교장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컸다. 완벽한 수업이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수업 공개를 마치고 나면 무엇인가 하나씩은 지적을 받기 일쑤다. 게다가 부족한 수업이었거나 실수라도 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우리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정보부장님의 입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이 부장님께서서는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격려와 함께 "담당 연구사가 출장인데, 마침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라며 부담 없이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개수업의 잘못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스마트교육법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했다.

"저도 여상 출신입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졸업 후에 바로 사회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인내심과 성실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 곳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에 관한 지식은 직장에 들어가서 배워도 됩니다.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이 되어야 직장에 가서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준에 맞는 내용을 재미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학교의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스마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밥 벌어먹고 살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역설했다. 나는 평가의 변을 듣는 동안 마음속으로 감동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언제 누군가가 "옳은 말이니 필요한 말 보다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기에 나는 속으로 "가식적인 친절한 말보다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날 "잘못을 지적하는 필요한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친절한 말"이 사람을 더 감동시키고, 설득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